

## Modern Reinterpretation of Filial Piety(孝): Focused on Sutra on parental grace(父母恩重經)

Sunsuk Jeon\*

Kyung Hee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text of Xiaojing itself and aims to clarify the principal essence of ‘filial piety’ in th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children as a subject which could be effectively discussed in the modern times.

**CONTENTS** ‘Filial Piety’ stem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The love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is also named ‘parental love’ which is much more precisely explained in the ‘Sutra of Parental Grace’.

**RESULT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Sutra of Parental Grace’ displays the forms of filial piety and unpiety in specific and realistic ways. Second, the filial piety of parental love(慈孝) in Buddhism can be viewed as knowing of grace(知恩) and the requital of grace(報恩), while grace(恩) means the parental love, and knowing(知) and requital(報) means knowing and repaying the love of parents. Third, the love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is the connection of three worlds, so it is the love that expands from myself to others, not confined to the relationship of two subjects. Fourth, the lifestyle of providing a good influence to others and taking care and enlightening the way of one’s life based on the love received from parents could be called the lifestyle based on the ‘filial piety’ of Buddhism.

**KEY WORDS** Sutra on parental grace, parental love(慈), filial piety(孝), requital of grace(報恩), knowing of grace(知恩), Buddhism

\* **Corresponding to** Sunsuk Jeon (Lectur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E-mail : hanhee21@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 ‘효’의 현대적 재해석: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중심으로

전선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효’를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대에서도 유효하게 논의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본 ‘효’의 본질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慈)’로 표현되는데 『부모은중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불교의 ‘보은(報恩)’은 ‘보’는 위에서 아래로의 사랑으로, ‘은’은 아래에서 위로의 사랑을 뜻한다. 불교에서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삼세(전생, 현생, 후생)의 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는 효가 현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등과 같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불교에서의 ‘효’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관계인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선 모든 사람에게 인(仁)의 마음을 갖는 인류애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은중경』은 효와 불효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자효’는 불교에서 ‘지은’과 ‘보은’으로 볼 수 있는데 ‘은’은 부모의 사랑, ‘지’와 ‘보’는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보답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삼세의 연이므로 둘의 관계가 아닌 나로부터 타인에게 확장되는 사랑이다. 넷째, 부모에게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길을 깨우치고 가꾸고 또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불교에서의 ‘효’에 기반한 삶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부모은중경』, 자(慈), 효(孝), 보은(報恩), 지은(知恩), 불교

## I. 들어가는 말

효(孝)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효’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만 현재 그 기본적인 ‘효’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 사회가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오랫동안 기존의 방식의 ‘효’는 전통 가치로 치부되며 사회적으로, 세대별로, 교육 부분에서까지 가치 갈등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 ‘효’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대부분 다시 전통적인 형태로서 효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또는 잃어버린 효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등 규범적인 형태로 내려졌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사회이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이유로, 또는 부모의 책임과 희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 및 봉양의 문제이다. 이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의 생각 속에는 기성세대가 지니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바탕으로 부모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며, 또 자신의 자식에게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본인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요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봉양이 자식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효’에 대하여 강조해온 책은 유교의 경전인 『효경』과 불교의 경전인 『부모은중경』이다. 『효경』이 국가적·정치적으로 ‘효’의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책이었다면, 『부모은중경』은 생활윤리로 전승되어 왔다. 『부모은중경』은 인도불교가 중국화하기 위해 가정윤리를 강조한 위경의 형태로 전해내려왔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 대중의 생활 속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사회에서도 ‘효사상’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 않다. 『부모은중경』의 내용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식으로서 보은하는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현재 ‘효’의 실천 방법에 대한 탐색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효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불법승 삼보에 공양하고 나아가서는 성불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미 효에 대한 경전으로 『효자경』, 『부모은난보경』 같은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은중경』을 만들었다. 그것은 유교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출가라는 행위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 따라서 수세적 입장에서 간행되었다고 본다. 『부모은중경』은 조선시대 목판본으로 많이 간행되었는데 양적으로 『묘법연화경』과 『금강경』 다음으로 많이 간행되었다(장정태, 2018: 40). 불교는 기본적으로 탈세속적이다. 불교가 탈세속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인 ‘효’에 주목하고, 경전으로 밝힌 이유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간관계의 근본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모은중경』, 불교의 효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부모은중경』을 텍스트 중심으로 해석한 다음, 불교의 효를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모은중경』의 ‘효’의 의미를 텍스트를 통해 분석한 후, 불교의 ‘보은(報恩)’을 ‘자효(慈孝)’의 측면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의 상호성에 대하여 탐색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효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부모은중경』의 효에 대한 논점

『부모은중경』의 첫 장면은 부처님이 여러 제자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온 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다. 부처는 처음부터 ‘부모의 은혜와 회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태어날 수가 없고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길러질 수 없다. 어머니의 몸에 의탁해 그 뱃속에 있다가 열 달이 다 되면 아이는 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져 세상에 태어난다. 그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키운다. 유모차에 누워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아 부드럽게 달래고 말없이 미소를 띤다. 배가 고플 때 어머니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고 목이 마를 때 어머니가 아니면 젖을 먹을 수 없다. 어머니가 배가 고플 때도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아이에게 먹인다. 아이를 마른 곳으로 밀어내고 어머니는 축축한 곳에 눕는다. 이러한 도리가 아니면 어버이라 할 수 없다. 어머니가 아니면 자랄 수 없으니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기른다. 유모차를 떠날 때까지 자식에게 먹이는 젖은 여덟섬 네 말이다. 어머니의 은혜를 헤아리자면 넓은 하늘이라도 다할 수 없다. 아아! 자애로운 어머니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다고 하겠는가.1)

『효경』이 각 계급 또는 신분에 따라 행해야 할 덕목과 효를 주로 이야기했다면, 『부모은중경』은 부모 자식 간 두 개인의 관계성에 집중한다. 『부모은중경』에서의 ‘효(孝)’는 부모의 ‘자(慈)’를 구체적으로 상술한다. ‘자’의 시작은 아이의 탄생 전부터 시작된다. 탄생 전의 ‘자’는 태교이다. 어머니의 몸에 의탁해서 아이가 자랄 동안 어머니는 열 달 동안 매우 고생한다는 것을 강조한다.2) 탄생 이후의 ‘자’는 양육과 회생이다.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

1) 『부모은중경』에 대한 해석은 최은영 『부모은중경(대방편불보은경)』의 역주를 참고하였다. 『父母恩重經』: 佛言 人生在世 父母為親 非父不生 非母不育 是以寄託母胎懷身十月 歲滿月充 母子俱顯生墮草上 父母養育 臥則蘭車 父母懷抱 和和弄聲 含笑未語 飢時須食 非母不哺 渴時須飲 非母不乳 母中飢時吞苦吐甘 推乾就濕 非義不親 非母不養 慈母養兒 去離蘭車 十指甲中食子不淨 應各有八斛四斗 計論母恩 昊天罔極 嗚呼慈母云何可報.

2) 『불설대보은중경』에서는 태아의 열달 동안의 모습과 출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임신된

무것도 없다.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 대로 자랄 수 밖에 없으며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우물을 길고, 부엌일을 하고, 방아를 찧고 땀을 간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내 아이가 집에서 울며 나를 생각할 거야 하고 곧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아이는 멀리서 부모님이 오는 것을 보고 유모차에서 머리를 흔들며 반기거나 배를 땅에 질질 끌고 울면서 어머니를 향해 기어 온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굽혀서 자식을 끌어안고 두 손으로 먼지를 털어 주고 입을 맞추고 앞가슴을 열어 젖을 준다. 어머니는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자식은 어머니를 보고 기뻐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다정하고 자애로운 마음이 가장 가까운 사랑이니 이보다 더 큰 자애는 없다.<sup>3)</sup>

어린 시기에 부모의 ‘자’는 아이에게 절대적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주는 따뜻한 눈빛과 말, 표정 등 상호 교감으로 대표된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에 반응한다. 퇴근하는 부모를 반기는 것, 부모와의 스킨십 등은 부모의 ‘자’에 대한 자식의 반응이자 부모와 자식의 상호 교감이다. 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여타 다른 관계와는 다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만큼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드물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더라도 이미 자식에게는 부모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아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부모로부터 자신의 본유를 찾는 것 또한 여타 다른 관계와는 다른 부모-자식 간의 특성이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자신의 몸을 빌어 나온 자식을 자신의 분신 또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기호나 욕망 등을 넘어서는

태아는 첫 달에 마치 풀 끝에 맺힌 이슬과 같아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고 새벽에 왔다가 오후에 흩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기도 한다. ...중략...네 달째의 태아는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 ...중략...아홉 달째의 태아는 어머니의 배에서 먹고 마신다. 복숭아, 배, 마늘은 먹지 않지만 오곡을 맛본다. 어머니의 간, 심장, 비장, 폐 등의 장기는 아래를 향하고, 위, 대장, 소장, 방광 등의 장기는 위를 향해 있는데 그 사이에 산과 같은 것이 있다. 이 산의 이름은 수미산, 업산, 혈산이다. 이 산이 무너지면 하나의 영긴 피가 되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간다. 열 달이 되면 태아는 비로소 태어나는데 만약 효성스럽고 순종하는 자식이면 팔을 위로 올리고 손을 마주한 채 태어나서 어머니를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오역죄를 지을 자식이면 어머니의 태반을 찢고 손으로 어머니의 심장과 간을 꼭잡고 발로 어머니의 골반을 밟고 서서 나오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께 천 개의 칼로 배를 휘젓고 만 개의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준다.

- 3) 『父母恩重經』: 父母云何可報。但父母至於行來 東西隣里井竈確磨。不時還家 我兒家中啼哭憶我即來還家 其兒遙見我來 或在蘭車 搖頭弄腦 或復曳腹隨行 嗚呼向母。母爲其子曲身下就長 舒兩手拂拭塵土 鳴和其口開懷出乳。以乳與之 母見兒歡 兒見母喜 二情恩悲親愛 慈重莫復。

희생으로 나타난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밝힌다.

첫째, 이 몸을 잉태해 지키고 보호해주신 은혜다.  
둘째, 출산하실 때 고통받는 은혜다.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시는 은혜이다.  
넷째, 쓴 것은 어머니가 삼키고 단 것은 뱉어내서 주신 은혜이다.  
다섯째, 아이는 마른 곳에 눕히고 어머니는 젖은 곳에 누우신 은혜이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이다.  
일곱째, 자식의 더러운 것을 빨고 씻어 주신 은혜이다.  
여덟째, 자식이 멀리 가면 걱정해 주신 은혜이다.  
아홉째, 자식을 위해 마음고생 하는 은혜이다.  
열째, 끝없이 사랑하고 근심하시는 은혜이다.<sup>4)</sup>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서 밝히는 부모의 사랑을 요약하면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애정이 어린 걱정이다. 부모는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아끼고 걱정하며,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을 겪지만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를 보며 그 고통을 잊는다. 또, 자식을 출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출산하고 난 후에 양육자로서의 부모, 교육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 부모도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이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희생한다. 부모도 마른 곳이 좋지만, 자식을 위해 젖은 곳에 눕고 부모도 더러운 것이 싫지만 자식을 위해 더러운 것을 빨고 씻어 준다. 이러한 희생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자식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나 직업도 10년 이상 또는 20년 가까이 꾸준히 실천하고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다. 가정은 가족이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이지만, 긴 시간 동안 부모의 주체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유지되는 것이다.

『부모은중경』에서 다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주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다. 이는 자식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知恩), 부모의 사랑을 갚아나가야 한다(報恩)는 지은과 보은을 조망하지만 좀 더 고찰해 보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라면 옹당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저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겠지만 자식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오롯이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진정한 지은과 보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부모은중경』에서 밝히는 효이다.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第一, 懷胎守護恩. 第二, 臨產受苦恩. 第三, 生子忘憂恩. 第四, 咽苦吐甘恩. 第五, 迴乾就濕恩. 第六, 哺乳養育恩. 第七, 洗濯不淨恩. 第八, 遠行憶念恩. 第九, 深加體恤恩. 第十, 究竟憐愍恩.

### III. '자효(慈孝)'와 '보은(報恩)'의 상호관계성 탐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하다.<sup>5)</sup>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1촌이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며 운명도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이다. 부모는 자식을 품고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며,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크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격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맺으면서 생활공간을 넓히고, 인간관계를 확대한다.

유교의 『삼강행실도』류의 효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보은'은 필연적으로 쌍방향적이다. 보(報)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은(恩)이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恩)이란 위로부터 아래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은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무량(無量)한 은혜이다. 따라서 『부모은중경』의 위대한 측면은 『삼강행실도』가 강요하는 복종의 윤리를 하해(河海)와도 같은 자비의 윤리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김용옥, 2014: 165).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자비와 같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은중경』에서는 부모의 하해와 같은 사랑과 대비되는 자식의 불효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마침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머리를 빗거나 쓰다듬으며 좋은 옷을 입으려고 욕심을 낸다. 옷이 낡고 헤어지면 부모님은 직접 새롭게 좋은 면과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자식에게 먼저 준다. 자식은 고향을 떠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쁘기만 한데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 사방으로 기울며 창가에 머리를 얹고 기다린다.<sup>6)</sup>

『부모은중경』에서의 불효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식이 독립하거나 가정을 이룬 다음 부모와 멀리하는 것, 다 자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식이 또는 다 큰 아이가 부모와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부모 대부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효도가 부모가 자식에게

5) 문을식(2017)은 비로자나불(광명의 부처)의 사상과 『부모은중경』에 내포된 사상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비로자나불의 사랑과 『부모은중경』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재적인 존재와 같으며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비로자나불처럼 바닷물과 파도에 비유할 수 있으며 비로자나불이 인위적인 의도로 우주가 창조되지 않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가식적이지 않고 본래적이며 부모의 자식사랑은 비로자나불의 신통력과 같다.

6) 『父母恩重經』: 遂至長大 朋友相隨 梳頭摩髮 欲得好衣 覆蓋身體 弊衣破故 父母自著新好綿帛 先與其子 至於行來 官私急疾 傾心南北 逐子東西 橫上其頭.

주는 사랑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의 시차 때문이다.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태어나서 영아, 유아, 청소년, 성인의 시기를 경험한다. 그리고 부모가 성인의 시기일 때 자식이 태어난다. 그러므로 부모가 성숙한 시기가 자녀가 성숙한 시기보다 더 길다. 보통 부모는 부모의 부모로부터 양육되고 교육을 받아서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이 주어지고 보통 책임감 있게 자식을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부모를 만나 부모의 도움으로 미성숙한 시기를 보낸다. 아주 어릴 때는 할 줄 아는 것과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효를 실천하고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학업 등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시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서 안정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효 그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유년기의 자녀를 알뜰살뜰 보살핀 것만큼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또, 보통은 청소년 후기, 청년의 시기에 자기 발전에 집중하고 자기 발전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에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식이 다시 부모의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느라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효를 실천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부모에게 있어서 당연히 자식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큰 효도이지만 봉양과 보은의 관점에서 부모가 자식을 알뜰살뜰 아끼고 사랑한 것과 같이 자식이 부모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인간의 일생을 시간적 관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부모의 효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효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효 윤리의 근본이 되는 개념은 무엇보다 지은(知恩)과 보은(報恩)의 의미 구현이다. 가르침을 통하여 부모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지은이라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보은의 의미가 된다(이병철, 2018: 279). 불교는 연기법에 따라 부모를 만나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본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수많은 인연 중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은 특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에 의해 부모를 만나 인간으로 태어나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부모는 왜 나를 낳았을까? 또는 이럴 거면 나의 부모는 나를 왜 낳았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가 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 또는 고찰이 밀

바탕에 깔려 있으며 인간이 살면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인도의 한 남성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인간이 태어나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아이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출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그의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인구억제주의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소송을 건 것도 주목할만하지만 그 중에서 한 번 생각해볼 것은 이 인도 남성은 5살 때부터 ‘부모가 나를 왜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부모는 등교를 강요한 때를 다음과 회상했다. 이때 나는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에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으며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대답이라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SBS뉴스, 2019.02.12.). 이처럼 부모-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은 삶의 본래적 의미,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나, 삶의 의지와 그 삶을 지속하는 힘 등을 구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여타 다른 관계보다 상호관계성이 깊다. 부모의 유전자를 비롯한 여러 유무형의 모습이 자식에게 전달되고, 오랫동안 같은 생활 방식을 공유한다(전선숙, 2022: 173). 또, 부모가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고 자식이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은 비슷한 유전형질을 가진 나와 가장 가까운 타인이다.

인연과의 상호인과성의 원리에 의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내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업식(業識)이라는 원인이 부모라는 조건을 만난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이 업연한 사실을 자각할 때 부모에 대해 섬기는 것(孝)과 따르는 것(順)은 매우 자연스런 것이며, 부모에 대한 효순심(孝順心)은 인류 보편적인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고영섭, 2006: 83). 유전적으로 나와 가장 비슷한 타인이며, 나와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가 부모이므로 대체적으로는 부모의 삶을 상당 부분 전사하고, 그 뜻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와는 다른 삶의 주체이며,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상당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자식 또한 상당 부분 부모의 삶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받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신의 이웃,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등에게 확장하는 것 또한 보편적인 효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효’의 가치는 부모-자식 간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선다.

#### IV. 현대적 재해석

‘자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감정 중 가장 원초적이며 처음으로 맺는 관계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삶을 얻는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시기의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앞서 밝혔듯이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서 유아기까지는 부모의 양육과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부모와 유전적 형질이 비슷한 자식의 경우는 부모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생각, 생활 습관 등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와 유전적 형질은 비슷하지만, 개별주체이며 유아기가 지나면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점에서 ‘효’의 가치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시작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전선숙, 2022: 165). ‘자’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면 일반적으로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은중경』에서는 왜 ‘효’를 강조했을까?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육신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받는다. 이러한 생명력은 눈에 보이는 혈육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이치와 생명의 기운을 모두 아버지를 통해 받게 된다는 의미다. 숨을 고르고 보고 배우는 모든 교감과 행위는 아버지로 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운과 혈맥은 자녀와 서로 통해 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며, 부모에게서 물려받아 이어지는 기운이기도 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 지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생이다(이병철, 2018: 278).

효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인(仁)’의 모습을 보였다면 자식도 부모를 당연히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또, 부모에게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면서 친구, 선생님, 또 사회에서 맺게 되는 여러 형태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토대로 또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효는 실천적으로는 보은하고 봉양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고마움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는 것도 효이다. 자식의 일생을 보면 유아기에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성인이 되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몸과 마음이 독립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부모의 고마움이나 사랑을 잊는 경우가 많아서 ‘효’라는 말 자체 만으로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불교는 모든 권위와 도그마(Dogma)를 배격하고 참으로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 곧 진리 그 자체를 중시하는 철저한 진리 지향의 사상이다. 불교는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로 하여

금 깨달게 하는 깨달음의 종교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주관이 개입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타당성, 세계성과 영원성을 지닌 본래부터 그러하고 자연스러운(法爾自然) 보편의 진리, 그 자체란 말이다. 부처는 다만, 이 진리를 자각하고 그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연기의 진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진리지만 이것은 또한 궁극적인 진리이기에 인간이 그 깊고 넓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월훈스님 외, 2000: 77-78).

불교에 귀의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출가이다. 불교의 ‘출가’는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불교의 세계로 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불교를 부모도 없는 종교라고 비판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이지만 불교의 세계관에서 삼세의 인연은 현세의 부모-자식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출가한 수행자는 내가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깨달음을 구하도록 도와주고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말미암아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도 같다.

현세를 넘어서는 삼세의 부모로 넓혀지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을 향한 시선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불교적 효는 시공간을 넓혀 시간상으로는 일세에서 삼세로 나아가고, 공간적으로는 ‘나’에서 ‘모두’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 효학의 이론적 배경도 현재의 나와 내 부모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삼세에 어우러져 있는 나와 내 부모라는 관점으로 바라 볼 때 확보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효의 관점은 일세에서 삼세로, 한 가족에서 다중의 가정으로 나아간다(장정태, 2020: 53).

결국 효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출발해서 사회로 넓혀나가는 것이다. 효의 근원은 인간 사랑이며, 이 인간사랑은 부모-자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출발은 부모로부터 하지만 그 과정과 끝은 부모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형태는 현재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언젠가 미래에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기다림이다.

## V. 결 론

본고는 불교의 ‘효’의 바이블인 『부모은중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부모라는 존재는 생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 또한 절대자가 아닌 유한한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 아닌 무한한 절대자이자 우주로 인식한다. 부모가 평범하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수타 니파타 경의 대문에서도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머니의 자기 목숨과 같이 자

식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희생과 사랑으로 표현하였다. 또, 부처의 사랑은 일체를 포용한 사랑이며 모든 우주의 높이와 깊이, 넓이로 말미암아 맑고 맑은 사랑의 힘이라고 덧붙여 상술하였다(Burt, Park trans., 1997: 70).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 또, 대부분의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한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둘만의 관계로 그치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해 나간다.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온전히 받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감에 따라 친구, 선생님, 이웃 등으로 그 관계가 확대된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부모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와 부모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양육으로 시작하고 이어진다.

불교의 효 사상은 현세적인 물질적 정신적인 부모봉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회 속의 고통과 괴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적(三世의) 효행이다. 더 나아가 효행 대상이 나의 부모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나의 부모와 같이 여기는 동체대비사상으로 실현될 때 불교적 효행은 그 가치의 완성을 이룬다(도웅스님, 2017: 19-20). 결국, 효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직접적으로 사랑을 받은 대상인 부모를 봉양하고 보답하는 것이지만 좀 더 확대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가족관계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양상을 현실적으로 풀어냈다. 또,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효에 대한 상호적 관계를 상술했다. 효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며,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효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현대사회에서 시대 흐름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양상은 다양해지고 바뀔 수 있으나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바탕이 되는 근본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의 본래적 관계에 대한 꾸준한 고찰과 탐색이 요청되는 바이다.

## References

- Burt, E. A.. *The teachings of the compassionate buddha*. 박기준 옮김 (1997). 불교의 진리. 서울: 서문당.

- Jang, J. T. (2018). Meaning of the Filial Duty and Its Practice Direction in Buddhism Presented in Bumoeunjunggyung. *Journal of Korean Adolescent Culture*, 32, 36-54.
- Jang, J. T. (2020). A Study of filial piety in Buddhist scriptures -Fathers: Jung-gyeong and Jeongto-Sambu-Gyeong-. *Journal of Korean Adolescent Culture*, 35, 45-82.
- Jeon, S. S. (2022). Modern Reinterpretation of Xiao - Focus on the Xiaojing(孝經; Classics of Filial Piety) -. *Korean Educational Idea Association(KEIA)*, 36(1), 159-177.
- Ko, Y. S. (2006). Theory and Practice of Buddhist Hyo Stud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44, 75-123.
- Lee, B. C. (2018). The Implementation and Tradition of the Meaning of Thought of Filial Piety. *Korean Thought and Culture*, 95, 259-284.
- Moon, E. S. (2017). A Relative Study on the Vairocana-Buddha' thought and Bumoeunjunggyeong. *The Journal of Esoteric Buddhism (JEB)*, 18, 147-179.
- SBS News. (2019.02.12.). Why do you make me born without your consent?. Retrieved May 3, 2022,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2961](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2961).
- Seoul News. (2019.02.28.). Why do you make me born without your consent?. Retrieved May 3, 2022,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8500019>.
- Yang, E. Y. (2014). The Essence of the Buddhist Filial Piety. *The Korean Society of Pure Land Buddhism*, 22, 113-137.
- 김용욱 (2010). 효경한글역주. 서울: 통나무. (Translated in English) Kim, Y. Y. (2021). A filial piety Hangul translation and annotation. Seoul: Tongnamoo.
- 도웅스님 (2017). 효사상과 불교. 부산: 산지니. (Translated in English) Dowoong monk (2017). A filial piety and Buddhism. Busan: Sanzini.
- 월훈스님 외 (2000).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이야기. 서울: 조계종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lhoon monk (2000). The story of filial piety of Buddha. Seoul: The Jogye order publishing company.
- 지눌 외, 조기영 역 (2009). 초발자심자경문.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Translated in English) Jinul monk, Jo G. Y. (2009). A sutra of beginner's self examination. Seoul: ZmanZclassic.
- 최은영 (2012). 부모은중경(대방편불보은경). 서울: 홍익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Choi. E. Y. (2012). Sutra on parental grace. Seoul: Hongik Publishing Co.